

75세 이상 백신 접종 준비 착착

장수군, 내달 시행 앞두고 접종안내·방문 동의 등 접종 프로세스 구축

장수군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수군은 내달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 될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4월 6일까지 접종 동의를 받는 등 사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해 군은 2차 시기인 4월 하반기에 백신접종 시기를 확정하고 조기에 고령자들의 집단 면역형성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이장 등이 대상자들에게 접종안내 및 방문 동의를 받고 있으며, 대상자 확인, 동의서 징구, 접종지원, 이상반응 모니터링까지 백신접종의 전 단계의 접종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

군은 사전준비를 바탕으로 장수군 한누리 전담 접종센터가 개소하는 즉시 75세 이상 노인과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등 3,800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종사자와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장애인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도 의료원에 내소하거나 방



장수군은 내달부터 예방접종센터에서 시작 될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앞두고 4월 6일까지 접종 동의를 받는 등 사전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문접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4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5~6월에는 65~74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이어지며, 6월까지 장애인 및 노인돌봄 종사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 의원급 의료기관과 치과 병·의원, 한방 병·의원, 약국 종사자, 경찰, 해경,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요원 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된다.

유봉욱 의료원장은 "예방접종은 코로나19 대유행을 멈추고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만큼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오는 4월 7일 전북도·소방청·경찰청·군과 함께 합동접종을, 4월 15일에는 모의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농촌 생활권 활성화 사업 본격 시동

무주군, '농촌협약' 공모사업 선정 위한 농촌협약위원회 구성

무주군이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시킬 '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선정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스스로 수립한 발전 계획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투자를 집중해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300억원에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삶의 질이 높은 농촌의 번성을 꾀하게 된다.

이에 군은 지난 29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무주군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협약위원회 구성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발 빠른 공모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워크숍은 무주군 농촌협약(2021)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진행과 주민들의 의견을 소통하고 종합 진단하는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진행했다. 워크숍 참여 구성원도 농촌협약에 관심이 높은 인사들로 구성됐다.

주인대표와 무주군 중간지원 조직, 지역사회 공동체, 행정, 용역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군은 조만간 두 차례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며, 2차는 농촌협약 전략 계획 구상안과 용역사 발표에 이어 3차를 통해 농촌협약위원회 발족과 '농촌협약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무주군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투자함으로써 '365 생활권 조성'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365 생활권'이란 30분내 보건·교육 기초 생활서비스가 해결되고 60분 내 문화·교육·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이 보장되며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농촌활력과 김영종 과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농촌협약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협약추진과 관련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며 "향후 농촌협약의 이행과 실행에 대해서도 높은 주민의 참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5월중 정부에 농촌협약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며, 정부에서는 실사와 서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오는 6월중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교육 실시

진안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의 전문성 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30~31일 이틀간 산불진화대원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진안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43명을 대상으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북지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특히 올해는 고온 건조한 기상조건과 코로나로 인한 야외활동 증가로 전국산불발생 건수가 예년에 비해 30%이상 증가한 실정이다.

또한 대형 산불의 위험도 어느 때 보다 높아 초기진화를 위한 진화대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초동진화체제 정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진화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불진화장비와 산불진화회계시스템 사용법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경운기·트랙터 등화장치 무료 설치

장수군이 농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농업기계 등화장치를 무료 보급한다.

장수군은 오는 4월 9일까지 등화장치가 미부착된 경운기와 트랙터 20대 대상으로 등화장치를 무료 설치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운기와 트랙터는 트레일러에 농산물 등을 싣고 주행하거나 야간과 우천 주행 시 속도가 느리고 식별이 잘되지 않아 자동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군은 3월 1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등화장치 부착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 농가의 경운기와 트랙터를 대상으로 등화장치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군은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전구 교환이 필요 없는 태양광 충전 방식의 등화장치를 부착해 농업인들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가족관계 회복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무주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장진원)를 통해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관내 주민 중 취약 및 위기가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상담 프로그램은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내 갈등 상황을 해결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혼신청 가족 및 이혼 전·후 가족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혼 전·후 가족지원 프로그램), ▲부부관계 갈등, 가치관의 차이, 경제문제 등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부

부상담 프로그램), ▲부모·자녀 간 갈등 및 자녀양육 문제 상담(부모·자녀상담 프로그램), ▲그 외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가족 상담을 진행한다.

무주군 가족상담은 전문 심리상담사가 직접 내담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행하거나 내담자가 센터를 방문, 또는 유선 상으로 이뤄진다.

이밖에도 ▲아버지 축구 자조모임, ▲방학 돌봄 프로그램 '다 놀자', ▲가족역량강화 교육, ▲나눔 가족 봉사단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미생물배양센터 물품 보관창고 신축 나서

무주군이 유용 미생물의 안전 생산을 도모할 목적으로 미생물배양센터 물품 보관창고를 신축한다고 30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읍 당산리 일원에 2억6,500여만원(국비)을 투자해 오는 6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물품보관창고는 면적 260㎡규모 지상 1층으로 1동을 신축하며, 원료 및 자재보관 창고와 저온저장고로 구성

한다. 신축될 보관창고는 높이 5m, 부피 612㎡ 유용미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저장기능을 갖고 있다.

군은 유용미생물 등을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편리성 증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창고로 사용할 계획이며, 농업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실현으로 환경보전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의회, '국도 26호선 보통재 터널화 사업' 반영 촉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반영 촉구 성명서 채택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30일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국도 26호선 보통재 터널화 사업의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준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날 성명서에서는 국도 26호선 '부주-소양 보통재' 구간은 전주와 진안, 장수 등 전북 동부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일정에 맞춰 급하게 개설되어 도로선형 및 설계속도 등이 규정에 맞지 않게 건설되었음을 지적했다.

조준열 의원은 성명서 채택 이유에서 "언제까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역주민의 목숨이 담보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경제성보다는 국도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동·서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20여년간 부귀면과 소양면을 연결하는 터널 개통이라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현실이다"며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국도 26호선 보통재 터널화 사업'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진안군의회 성명서는 국회·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 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이산북부 스탬프투어' 실시

진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요 명소를 홍보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마이산북부 스탬프투어'를 실시한다.

이번 스탬프 투어는 마이산북부 관광안내소에서 스탬프 활동지를 배부 받아 북부상가 및 카페를 이용하고,

지정 스탬프투어 장소인 ▲산야초타운 ▲역사박물관 ▲패지문화체험관 ▲가위박물관 ▲명인명품관 ▲미로공원 ▲연인의길 ▲족욕카페 중 3개소 이상을 방문한 후 해당 장소에 비치된 스탬프를 날인하여 관광안내소에 최종 제출하면 전북 주요관광지에서 사

용가능한 투어패스카드를 제공한다. 또한 명인명품관·패지문화체험관·홍삼족욕카페 등에서 체험 활동을 실시한 관광객은 소정의 기념품을 추가로 증정한다.

스탬프투어는 기념품 소진 시까지 실시 예정이며,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군을 방문하는 관의 거주 관광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